

66 대전 인권증진의 비전과 발전방향 99

박노동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I. 연구개요

01 연구 목적 및 내용

- 대전 인권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전의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여건을 분석하고 인권도시로서의 대전의 비전과 발전방향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 인권도시 대전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고, 도시운영이나 시민의 삶 속에 인권이 내재화되어 정의롭고 풍요로운 지역사회가 구현될 수 있는 전략과 인권도시로서의 대전의 브랜드 정립을 통해 지구화시대 대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향 설정
- 인권의 의의와 국제사회의 인권동향과 국내의 인권동향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인권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대전광역시의 인권도시 추진 여건을 역사·문화적 여건, 정책적 여건, 제도적 여건, 조직적 여건의 측면에서 고찰
- 인권정책의 비전설정과 인권증진 정책의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검토하고, 인권도시 발전 방향으로서 인권제도의 기반구축, 인권 가치 및 문화 확산을 인권교육,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중점과제로 제시하면서 대전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설계
 -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대전시에서 추진 할 수 있는 인권증진 정책방안을 도출
 -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 모색, 목표 설정, 세부 실천과제 제안

02 연구 방법

- 기존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정책의 최근 동향 검토
- 사회적 자본 확충, 복지만두레 등 기존 정책과 인권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인권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도출
- 대전의 주요 인권관련 정책을 고려한 인권증진 정책 추진 방향을 도출, 실행계획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정책 철학, 상위 비전의 관점에 대한 자료 및 문헌 검토

II. 연구결과 : 주요 연구내용

01 인권도시 추진을 위한 대전시의 역사·문화적 여건 검토

- ◊ 역사문화적 여건으로 유구한 역사를 지닌 충절의 고장인 대전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신념이 강함.
- ◊ 대전시민들 또한 순수하고 따뜻한 인간미가 넘칠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력이 강하고 대전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시민운동 참여의향이 높아 인권친화적이라 할 수 있음.
- ◊ 대전시민으로서 자부심과 시민운동 참여의향이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고,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므로 인권도시를 지행하기에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대전광역시, 「2013 대전의 사회지표」, 참조).

02 정책적 여건 검토

- ◊ 정책적으로는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시정목표 5가지 중 따뜻한 복지도시, 쾌적한 교통·환경도시, 소통과 화합의 시민 행정은 인권이 지향하는 목적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 비전 달성을 위한 시민공감·소통행정 구현, 나눔·섬김·상생의 대전의 복지구현, 사회적 자본확충, 지역공동체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인권도시 구현의 추진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음.

03 제도적 여건

- ◊ 대전은 2012년 대전광역시 인권도시 및 증진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 인권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
- ◊ 장애인, 여성, 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 관련하여 다양한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어 인권관련 제도적 여건은 비교적 우수함.

04 조직적 여건

- ◊ 대전시는 인권 업무를 전담적으로 추진할 담당관·과 단위의 전담부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도시에 비하여 인권관련 기관이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 업무를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또한 많이 설치되어 인권 도시 구현을 위한 조직적 여건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 ◊ 법체험 및 법연수 전문기관으로 2007년 7월 23일 솔로몬 로파크가 설치 운영되어 인권친화적 법교육 실시 및 체험이 가능
- ◊ 대학의 인권관련 전문기관으로 충남대학교 인권센터 등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인권도시 구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로 대전충남인권연대, (사)여성인권티움, 대전여성정책센터, 대전장애인인권센터,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이주여성인권센터, 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등이 활동
- ◊ 대전의 사회복지시설은 580개로 생활시설 190개, 이용시설 390개가 활동
- ◊ 또한 2014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개소가 예정되어, 인권상담과 조사, 교육과 홍보, 인권정책 의제의 발굴 등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대전을 인권친화적인 도시로 가꾸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다만, 대전시 내에서 인권업무를 총괄할 담당관·과 단위 부서의 설치, 인권 옴부즈맨제도의 도입, 인권위원회의 활성화 등은 앞으로 추진 과제로 설정하여 인권도시 구현의 추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III. 정책 제언 : 인권증진 정책의 비전과 발전방향의 설정

01 인권 정책의 비전

- ◊ 대전의 도시 이미지는 과학도시, 복지만두레 등 민간복지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도시 등이 있으므로 기존도시 이미지의 연장 선상에서 비전과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대전의 비전인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 외의 연계선상에 인권 정책의 비전을 설정하되, 시정의 방향인 잘사는 대전, 꿈이 있는 대전, 세계속의 대전과 시정목표인 첨단경제도시, 교육·문화레저 특별시, 따뜻한 복지 도시, 쾌적한 교통 환경도시, 소통과 화합의 시민행정과 서로 배치되지 않고 서로 조화되고 상승 발전할 수 있도록 설정
- ◊ 인권도시 대전의 비전은 상징적인 선언이나 완결된 이념형적인 모델을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도시 구성원이 공동으로 추구하여야 할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중시하면서 설정하되 인권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게 설정
- ◊ 인권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대전의 총역량. 즉 시민들의 인권의식 및 문화, 대전시의 인권행정체계, 시민사회의 조직 및 활동 역량, 대전시의 인권제도화 수준 등 지역의 총체적인 인권지형에 대한 사전 분석을 토대로 단체장 변동, 정책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시민 공감대 형성에 중점을 두고 비전 설정
- ◊ 국가 및 타 시도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전만의 비전 설정

02 대전 인권증진 정책의 추진전략

- ◊ 대전을 인권도시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시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도시의 지속력 유지, 인권보장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구축, 도시에 대한 자긍심과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등 브랜딩, 인권의 지구적 확산을 위한 도시 간 교류 협력 등이 필요함.
- ◊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 과제의 추진이 필요
 - 첫째, 국제적·지역적 수준의 인권지표체계 및 지수 작성과 항목별 실천계획 수립
 - 둘째, 인권친화적인 시민의식과 인권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및 학습체계 구축
 - 셋째, 인권의 보편 가치를 인류사회가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
 - 넷째, 세계적인 인권모범도시로서의 품위와 가치를 높여가는 도시브랜드 체고
 - 다섯째, 규범과 강제 장치로서 인권현장 및 인권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 구축

03 인권도시 추진체계의 구축 방향

- ◊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인권 증진을 제도화 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차원의 인권 보호 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아울러 인권 보호 체계의 제도화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
- ◊ 이를 위하여 인권업무 전담부서의 설치, 인권 감시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인권 단체 활동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관민 협력 위원회 결성이나 인권위원회 활성화 등을 검토하여야 함.

04 대전 인권 도시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 ◊ 인권제도 기반구축
 - 인권제도 기반구축은 인권현장 및 인권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
 - 인권행정 체계강화는 전담부서 설치, 옴부즈맨제도 도입, 인권위원회의 활성화, 인권법률상담서비스, 인권실태조사 실시 등 인권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 인권에 기반한 행정제도 운영은 인권을 고려한 계약제도 운영 및 행정정보공개 강화 등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인권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형성

○ 인권가치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 인권의 가치와 문화는 인권제도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주요한 인프라로서 인권친화적 행정환경 조성, 시민감수성 향상, 인권문화 조성 활성화를 통해 확산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이 인권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존중하는 행동을 하도록 인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전제가 되어야 함.
-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인권 감수성을 높이며,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문화적 토양을 인권 친화적인 것으로 바꾸는 데 기여
- 나아가 미래 사회의 구성원이 될 학생들이 올바른 인권 의식을 갖고 인권 보호와 증진에 참여할 때 미래의 지역 사회는 훨씬 더 인권 친화적 환경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함.

○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 인권의 모든 이들이 차별없이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차별없이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됨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최우선의 중요 과제로 하여야 함.
- 장애인의 경우 모든 공공시설·문화시설 및 대중교통에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여야 하며 기존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시설건립 위주에서 장애인 자립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함.
- 이주민은 기본적 권리를 누리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 문화적 통합을 위한 이주민 지원체계 마련
- 여성의 경우 기존 정책 외에 여성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미혼여성 등 이종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각별한 반차별 정책이 필요하며, 각종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노동자의 비정규직 문제와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정책 추진
- 노인의 경우 고령화 시대에 알맞은 일할 수 있는 환경 및 권리보장과 저소득층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정책이 필요
- 성소자의 인권은 무엇보다도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성소수자의 인권 교육 강화와 인권실태 조사 등이 요구됨.
- 어린이·청소년을 인권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학대, 학교폭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
- 그 외 북한이탈주민, 병력자, 범죄피해자, 철거민,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

○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 인권지향적 도시환경은 누구에게나 장벽이 없는 도시,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인권을 기억하고 배우는 도시, 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의 실현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음.
- 저상버스, 콜택시 등 교통시설 정비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 범죄로부터의 안전도시 구현
- 범죄피해자 지원
-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은 시민사회와의 인권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대전시의 인권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필요
-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국제 인권도시 등 인권의 각 주체들이 인권의 기준과 규범에 근거해 참여하는 인권 거버넌스 구축은 시민 참여 인권행정 운영,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실현
- 현재 지역 사회에서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 노점상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위한 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체들과의 소통과 연대가 전략적으로 중요
- 인권은 취약계층의 삶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기본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권리 충족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발언권과 영향력이 미미한 수준으로 이들의 요구와 필요를 대변해주고 정책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 또한, 정책 목표와 가치에서 유사성이 있는 사회적 자본, 복지만두레, 자원봉사 등의 네트워크 기반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66 창의시정 구현을 위한 전문가 콜로키움 개최 99



대전발전연구원(원장직무대행 장창수)은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과제들에 대해 연구책임자, 시 실무자,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콜로키움을 운영, 6일(목) 오전,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전문가 콜로키움은 연구과제의 주요내용, 연구방향 등에 대해서 담당자와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유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결과적으로 연구보고서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자 기획하였다.

첫 회의는 박노동 책임연구위원의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연구에 대해 대전시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해 대전충남 인권연대 이상재 사무국장,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임정규 사무국장, 한발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배순화 소장 등이 참석하여 인권정책 환경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전시 차원의 인권 보장 시스템의 제도화와 인권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인권 감시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과 인권 단체 활동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관민 협력 위원회 결성이나 인권위원회 활성화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대전발전연구원은 앞으로 매월 2회의 전문가 콜로키움 개최를 통해 대전시와의 정책적 소통과 협력적 연구수행으로 연구성과물의 질적 개선과 실현가능한 정책적 대안 모색에 힘써나갈 방침이다. j

66 로컬푸드 육성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모색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99



대전시와 대전발전연구원(원장직무대행 장창수)은 7일(금) 오후 2시 로컬푸드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농산물 공급과 농촌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대전시 실무부서 관계자 및 지난해 7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발족한 「행복한 대전만들기 e-포럼」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로컬푸드 소비 변화에 대응하여 음식의 가격과 질, 건강과 식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먹거리 문화 변화에 따른 로컬푸드 소비시장 전망과 농산물 유통구조를 위한 시 차원의 육성·지원체계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농산물 생산업자와 소비자, 시와 자치구간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 교류가 있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은 “로컬푸드는 시민 식생활에 밀접하게,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역 로컬푸드에 대한 육성과 지원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하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는 로컬푸드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한 먹거리 지원센터 및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농업 육성 재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j

66 2014 제1차 대전성평등정책포럼 「2014년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발굴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99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센터장 주혜진)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2014년도 대전시 여성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3월 7일 대전지역 여성단체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들 30여 명과 함께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및 대전시의 2014년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비전과 정책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업을 제안하는 자리로, (사)디모스의 정안숙 대표의 진행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의사결정 방법인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 국가여성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정책사업들에 얼마나 공감하는가를 현장 투표 방식으로 문의한 결과, 참여자들은 5점 만점에 평균 2.96점을 부여했다.

대전지역 여성단체 및 기관 전문가들은 여성정책 추진의 강점과 기회 요인으로 '성평등 관련한 인식 및 사회의 변화'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성인지 예산의 실행 등 성평등제도 관련 법과 본격적인 실행' 등을 꼽았으며, 약점과 위협 요인으로는 '실질적인 세부 전략이 부재'하고 '정책결정 집단이 남성 편중된 점' 등을 지적했다.

대전시가 앞으로 추진하길 바라는 여성정책사업들로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여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여성 고위공직자 양성', '성평등 교육의 체계화' 등이 제안되었으며, 현장 투표 결과, 총 23개의 제안 사업들 중 '육아·보육정책'과 '여성참여와 기회의 균등 보장 정책'이 가장 높은 공감도를 나타냈다.

이번 워크숍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이해하고, 참여 모둠별 주제에 따른 2014년도 대전시 여성정책 비전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심화토론을 통한 분야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j**

66 대전발전연구원 제50차 정기이사회 99



대전발전연구원(원장직무대행 장창수)은 3월 26일(수) 17시에 연구원 대회의실(2층)에서 제50차 정기이사회(이사장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대전발전연구원 전차(49) 이사회 결과 보고 및 연구성과의 정책활용도 증진방안에 대해 보고 하였으며, 또한, 안건으로 상정된 2013년도 한 해 동안 수행한 기본·정책·수시·용역과제 및 보조금사업 등 202건에 대한 연구 및 사업에 대한 실적과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인사규정·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j**

최근 대전지역 경제는 전월대비 수출과 수입 등 대외거래가 활발하였으나 생산과 건설이 부진하고 고용상황이 악화되었음. 전년동월대비로는 생산이 부진하였으나 수출과 수입 등 대외거래가 활발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된 가운데 저물가지속으로 대체로 양호한 모습임.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인 하강 국면을 보인 이후, 7월부터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2013년 12월에 이어 2014년 들어 소폭 반등하여 회복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과 물가의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등 전문분야의 생산이 증가한 모습임.

이와 같이 우리 경제의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투자 등 민간 부문 회복세가 아직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며, 미국 양적완화 리스크, 신흥국의 불안, 엔화 약세 등 대외 위험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대내외 경제동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 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내수 활력제고,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아울러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경기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인 하강국면을 보인 이후,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2013년 12월에 이어 2014년 1월 들어 소폭 반등하여 회복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금융

2014년 2월, 국내금융시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의 불안, 주요국 경제지표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이 커진 측면이 있으며, 환율은 소폭 하락하였음.

건설

2014년 1월, 토지거래면적은 전년동월대비 전월에 이어 감소하였고,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건축착공면적은 감소하였음. 미분양주택은 전월보다 감소하여 건설경기는 전월의 위축된 모습에서 보합세를 보임.

물가

2014년 2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축산물과 석유류, 섬유제품 등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나 농산물의 큰 폭의 상승과 내구재, 개인서비스 등이 상승하여 전월보다 0.4% 상승하였음.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8% 수준으로 지난달의 0.9%수준 보다도 낮아 매우 안정된 수준임.

소비

2014년 1월, 전월대비 자동차판매와 전력사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가 감소 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대형 소매점과 자동차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에너지소비와 농수산물거래가 감소하여 5개월째 호조세에서 다소 주춤하는 모습임. 향후 소매 판매의 경우, 음·식료 판매 등이 감소하여 전월보다 다소 부진할 가능성이 있으나, 1~2월 전체로는 개선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대외거래

2014년 1월 전월대비 수출과 수입 모두 지난달에 이어 증가함.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은 광산물, 석유류, 농림수산물, 기계류, 철강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수입은 광산물, 생활용품, 잡제품, 전자전기제품, 철강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전반적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무역수지는 전년 2월부터 흑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2014년 1월은 흑자폭이 전월과 같음.

고용

2014년 1월, 전월대비 취업자는 전월에 이어 감소하고, 실업자는 대폭 증가한 가운데 실업률도 상승함. 전년동월대비로는 취업자가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5개월째 증가한 반면, 실업자도 소폭 증가하였음. 고용상황은 전월대비로는 3개월째 악화되는 모습이나, 전년동월대비로는 실업자가 증가했지만 취업자가 그 이상으로 증가하고 실업률이 보합세를 보여 비교적 양호한 모습임.

생산

2014년 1월, 전월대비 출하가 증가하였으나 생산이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하여 전월 보다 위축된 모습이며, 전년동월대비로도 생산과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도 증가하여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향후 생산은 완만한 경기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올림픽 특수 소명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혼재되어 나타날 가능성 있음.

대전발전연구원 4월 행사 안내

01

2014년 한국정치학회 총칭지회 춘계학술회의 개최

- 주제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평가와 전망
- 일시 2014년 4월 3일(목), 13:00~18:00
- 장소 대전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주최 한국정치학회 총칭지회, 한양대 유럽-아프리카연구소, 대전발전연구원

02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 주제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 일시 2014년 4월 10일(목), 13:00~16:00
- 장소 대전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주최 대전발전연구원, 지역아동센터 대전광역시지원단

03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치유문화 국제학술대회

- 주제 산림휴양 자원 개발과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 일시 2014년 4월 11일(금), 13:00
- 장소 대전예술의전당 컨벤션홀(3층)
- 주최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산림치유교육개발원

04

창의시정 구현을 위한 제2차 전문가 콜로키움

- 주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방안
- 일시 2014년 4월 11일(금), 15:00
- 장소 대전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

05

창의시정 구현을 위한 제3차 전문가 콜로키움

- 주제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방안
- 일시 2014년 4월 22일(화), 10:00
- 장소 대전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